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녹) 연중 제2주일 11:00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총회장: 정명룡 미카엘 부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총무: 이승원 비오 1구역장: 우윤정 마리아  
2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청년구역장: 윤다혜 아멜리아 전례위원장: 허희숙 마리아  
성모회장: 김지선 소피아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대외협력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해 지킵시다.

- **성당에 늦지 않게 오기**
- **코로나 방역 수칙 지키기**

(녹) 연중 제2주일 미사(2023. 1. 15.)

\* 오늘 전례

연중 제2주일인 오늘의 복음은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증언하는 장면을 전해 줍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양”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는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이 미사에 참여합니다.

\* 말씀의 초대

• 제1독서(이사야서 49,3.5-6):

주님께서서

3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너에게서 내 영광이 드러나리라.”

5 이제 주님께서서 말씀하신다. 그분께서는 야곱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당신께 모여들게 하시려고 나를 모태에서부터 당신 종으로 빚어 만드셨다.

나는 주님의 눈에 소중하게 여겨졌고 나의 하느님께서서 나의 힘이 되어 주셨다.

6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다시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생존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다다르도록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 제2독서(사도바오로 코린토 1서 1,1-3):

1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오로와 소스테네스 형제가

2 코린토에 있는 하느님의 교회에 인사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다른 신자들이 사는 곳이든 우리가 사는 곳이든 어디에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들과 함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3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 복음(요한 1,29-34): 그때에

29 요한은 예수님께서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다.

30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31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32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33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 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내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34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미사 전례

본기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니

저희 기도를 인자로이 들으시어

이 시대에 하느님의 평화를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화답송

◎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 나를 굽어보셨네. 새로운 노래,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내 입에 담아 주셨네.

◎

○ 당신은 희생과 제물을 즐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의

귀를 열어 주셨나이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바라지 않으셨나이다. 제가 아뢰었나이다. “보소서, 제가 왔나이다.” ㉠

○ 두루마리에 저의 일이 적혀 있나이다. 주 하느님, 저는 당신 뜻 즐겨 이루나이다. 당신 가르침 제 가슴속에 새겨져 있나이다. ㉡

○ 저는 큰 모임에서 정의를 선포하나이다. 보소서, 제 입술 다물지 않음을. 주님, 당신은 아시나이다.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네. 그분은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를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네.

㉡ 알렐루야.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치의 주님, 그리스도인 일치 주간을 준비하는 교회를 굽어살피시어,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는 이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고, 주님을 한마음으로 섬기며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 되게 하소서.

2. 경제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보호자이신 주님, 경제인들을 보살펴 주시어, 세상의 참 주인은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재화를 올바르게 사용하며 공정하게 분배하여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하여 힘쓰게 하소서.

3. 냉담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총의 주님, 세례를 받았지만 지금은 교회를 멀리한 채 살아가는 이들을 이끌어 주시어,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루빨리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4. 본당 사도직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본당 사도직 단체들을 굽어살피시어,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향한 신심을 키우며,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영성체 후 기도**

주님,

저희가 천상 양식을 함께 나누고 비오니

사랑의 성령을 부어 주시어

그 사랑으로 한마음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성가 ♪ (미사곡 바뀐 부분 포함)**

입당 : 62(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봉헌 : 514(주여 대령했나이다)  
216(십자가에 제헌되신)

성체 : 159(세상의 참된 행복)  
180(주님의 작은 그릇)

파견 : 22(천지 생기기 전)

**공지 사항**

**♣ 1월 22일 설날 행사 안내**

오는 1월 22일은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입니다. 다음 주일(30일)에 세배와 함께 간단한 설날 맞이 행사가 있습니다. 신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영성체 후 연도 및 분향 예절이 있습니다.

- 미사 후 설날 합동세배 행사(성전)
- 음식 나눔 및 뒷마당 민속놀이(지하 강당)

♣ 다음 주일(설날, 22일)에 이대로 레오 신부님(대구 대교구 가톨릭 신문사 기획주간) 오십니다.

**♣ [2월 2일 주님 봉헌 축일 초 축복 예식]**

성모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님 봉헌 축일’(2월 2일)에, 1년 동안 제대(전례)에 사용할 초와 가정에서 사용할 초를 축복합니다.

- ▶ 구분 : 제대초 봉헌 & 개인초 신청
- ▶ 초 축복 예식 일자 : 1/29(주일)
- ▶ 제대초 봉헌 & 개인초 : 15유로 (사이즈 이전과 동일)
- ▶ 개인용 : 10유로 (제대용 사이즈의 약 1/2)
- ▶ 신청 마감 및 입금 : 1/22(주일)
- ▶ 접수 : 구역장님들께서 각 구역별로 1월 22일까지 접수 및 비용 취합하시어 부회장 변의용 베네딕토에게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모임**

- 성모회의 : 금일(15일) 미사 후

**♣ 봉사자**

	오늘(15일)	다음 주일(22일)
제1독서	범장수 바오로	이승원 비오
제2독서	김효경 리마	권혜림 세레나
복사	김익찬 암브로시오 / 박시윤 이냐시오	이준서 마르티노 / 이가은 마리아판체아
계단·화장실	범장수 바오로	이승원 비오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251.- • 교무금 € -.-